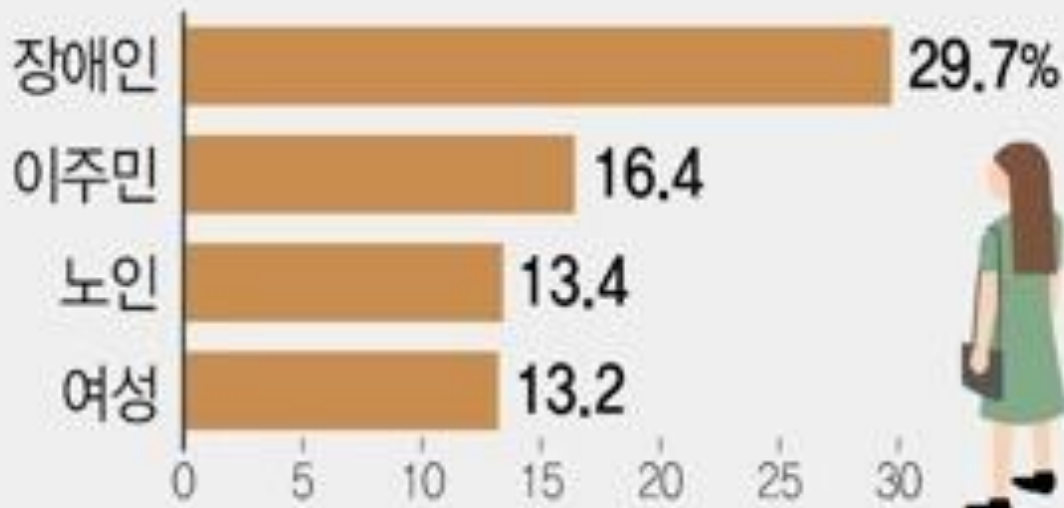


카드뉴스

1220 황주영

인권침해·차별 많이 받는 집단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사회 인권실태조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장애인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인 차별과 인권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오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를 알아보자.

• 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 일부(시각장애인 등)을 제외하면 일반인과 같다.

•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어를 안다.

->아니다. 경증장애인은 구화가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임에도 구화를 배워 수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 시각장애인은 다른 감각이 발달한다

->아니다. 촉각과 청각에 더 많은 집중력을 투자하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장애인 주차공간, 비워야 하는 이유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있는 구역이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차 후 휠체어가 다닐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주차공간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렇기에 주차를 했어도 차 안에만 있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장애인 주차공간이 꼭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그곳을 비워둬야 한다.

모두를 위한 시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소음으로 방해받기 쉬운 음성시계 또는 쉽게 고장 나는 촉각 시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한 이 시계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계의 특징은 시각장애인이 착용하든, 비시각장애인이 착용하든 누구에게나 멋스러운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